



“문헌기록도 결국 사람의 말”

예술 구술사의 세계적 선구자 제프 프리드먼 인터뷰

최근까지도 예술 구술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비주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벌써 20여 년 전부터 예술 구술사 작업에 힘쓰며,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이가 있다. 제프 프리드먼은 기록과 자료가 특히나 부족한 '무용' 분야의 구술사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마침 지난 5월 제프 프리드먼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무용기록학회가 공동 주최한 <예술 구술사 국제 워크숍>에 강사로 초대되면서였다. 그가 이끌어온 <Legacy>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술 구술사의 의미와 방법론, 성과 등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이해정 편집부 | 사진 박정훈



무용가가 학자로 진로를 트는 데는 저마다 여러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프 프리드먼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20년 전 무용가, 안무가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를 학자의 길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동료 무용가들의 ‘죽음’이었다.

198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무용가들이 전염성 AIDS에 걸려 대거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무용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기도 했다. 이들이 떠남으로써,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무용, 창의적인 동작까지 송두리째 상실됐기 때문이다. 무용은 특히나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예술’이자 ‘찰나의 예술’이기에, 그들의 몸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그들의 예술이 영영 사라진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프리드먼은 이들의 예술을 허망하게 흘러보내다가는 결국 샌프란시스코 무용 공동체의 역사가 단절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찰나의 예술인 무용을 기록하는 데 정열을 쏟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공연 예술가들의 구술을 채록하는 <Legacy> 프로젝트는 이런 고민의 토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구술사의 가치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한 최근에도 불신의 눈초리가 여전한데, 하물며 스무 해 전에는 오죽했을까. 여러 어려움과 지난한 과정을 뚫고, 20년간 총 75명의 공연 예술가들에 대한 구술 작업을 축적했다. 다행히도 그의 작업이 점차 인정받으면서, 2001년부터는 공연 및 디자인 박물관(Museum of Performance and Design)과 연계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었고,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반에는 무용 분야로 구술 대상을 국한했지만, 점차 연극, 음악 등 공연예술 분야 전반으로 범위를 키워나갔다.

제프 프리드먼은 이야기를 들을 때 유난히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습관이 있었다. 그건 아마도 상대방의 말을 누구보다도 귀담아 듣고 있음을 알리는 본능적인 배려일 것이다. 구술사를 향한 그의 열정은 붉게 상기된 얼굴색만큼이나 뜨거워보였다. 장난기 어린 웃음을 거두고 잠시 생각에 잠긴 이 선구자의 눈가에 고단했을 지난날이 스쳐 지나갔다.

문화예술 무용을 기록하기 위해 ‘구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가령, 영상으로 촬영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방식도 있었을 텐데. 나아가 문헌사가 아닌 구술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프리드먼 나는 안무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착안했다. 무용가가 안무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언어와 신체를 모두 사용한다.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몸동작, 제스처와 같은 운동 감각을 동원하기도 한다. 나는 언어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바로 구술사라고 생각했다.

구술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점은, 우선 기존 문헌사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 예컨대 비엘리트, 역사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집단,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접 역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구술사에서 주목하는 대상들, 대표적으로 흑인, 단순 노동자, 여자, 계

이와 레즈비언과 같은 호모 섹슈얼 등 비주류 집단들이 전부 ‘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주로 ‘지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구술사는 ‘신체적인 것’까지 역사에 반영할 수 있다.

문화예술 <Legacy>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미국 내에 예술과 구술사를 연결한 작업들이 많이 있었나?

프리드먼 물론 이 방법론이 주류는 아니었다. 구술사를 연구하는 기관들에서 간헐적으로 예술에 대한 구술사도 다루긴 했다. 예를 들면, UC 버클리나 콜롬비아 대학, UCLA 등에서 상당한 규모의 구술사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는데, 예술에 관한 프로젝트도 그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예술과 구술사를 연결한 작업은 뉴욕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Legacy> 프로젝트보다 10년 앞서 시작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Legacy> 프로젝트를 시작할 무렵, 뉴욕 공공도서관에서도 <Legacy> 프로젝트처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예술정보관에서도 2003년부터 예술 구술사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원로 예술가 105명에 대한 구술 기록을 완료했고, 사건사 1건을 진행했다. 그런 점에서 <Legacy>에서 20년간 진행한 예술 구술사 작업이 7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언뜻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만큼 한 예술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프리드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결과물에 비해 <Legacy>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적은 이유는 첫째로 처음 13년 동안은 기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작업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적으로 자원봉사 체제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13년 중에서도 초반 6년간은 구술사 워크숍을 진행하며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데 힘썼다. 매년 12명 정도의 연구자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보수 없이 자원봉사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문화예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준다면?

- 프리드먼** 3~4명의 채록 연구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구술자를 만난다. 보통 1주일에 1시간씩, 6주에서 8주 정도 면담을 진행한다. 또한 우리는 창의적인 예술가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디자이너, 무용 행정가, 교육자, 심지어 공연 후원자까지도 구술 작업에 포함시킨다.
-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는다면?
- 프리드먼** 아무래도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금 신청하는 서류 작업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것은... (잠시 침묵) 구술자였던 시한부 환자 무용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할 때였다.
- 문화예술** 반대로,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였나?
- 프리드먼** 구술사 작업을 모두 마친 뒤, 구술 자료를 책으로 엮어서 구술자에게 전달할 때.
- 문화예술** 그나마 2001년 공연 및 디자인 박물관에 편입되면서 안정적인 체제가 확보되었을 것 같은데.
- 프리드먼** 훗~씬 상황이 나아졌다. 지금은 박물관에서 기금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문화예술** 〈Legacy〉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한다면?
- 프리드먼** 음... (천천히 말을 뱉다) 이 분야에서 개척자, 선구자로 인식되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미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워크숍을 하게 되고 말이다. (웃음)

Jeff Friedman

예술사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무용가, 안무가, 교육자이다. 1997년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무용 구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러트거스 대학교 무용과 교수이며, 샌프란시스코 공연 및 디자인 박물관의 구술사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있다. 국제구술사협회, 미국구술사협회, CORD 무용연구회 등 세계적인 학술회의에서 공연, 논문 발표, 워크숍을 수차례 가졌다.





문화예술 이 프로젝트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대중에게는 얼마나 알려져 있나?

프리드먼 구술 대상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잘 알려진 편이다. 구술 작업을 완료한 후 책으로 출간하여 구술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Legacy>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안무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근육의 기억>(Muscle memory)이라는 춤이 있다. 이런 안무를 접한 대중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잘 인식하게 된다. 특히 지적인 안무가 아니라 구술자들의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안무이기 때문에, 뻣속까지 사무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폐부에서 나온 안무. 그런 점 덕분에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 가끔은 일반 관객이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로 찾아와 구술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투영된 공연이 만들어지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문화예술 예술 구술사를 통해 새로운 예술이 창조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좀더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으려면, 예술 구술사 결과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장구가 마련되어 있나?

프리드먼 몇몇 대학에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다. 러트거스 대학,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무용과 수업에서 구술사를 바탕으로 공연 안무를 실제로 해보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탄생한 안무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관찰된다.

문화예술 일반적인 커리큘럼에서 나오는 안무와 크게 다르다거나 특이한 점이 있나?

프리드먼 있다. 안무에서 구술자들의 삶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깊은 공감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술사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때때로 구술사 원본에 얽매어서 지나치게 교훈적인 분위기를 풍기기도 한다. 따라서 구술사를 바탕으로 안무를 할 때는, 예술과 자료의 성격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뮤지컬 <코스 라인>이 잘된 케이스다. <코스 라인>은 무용가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뮤지컬화되면서 점차 실제 사건들이 축약, 편집되거나 순서가 바뀌었다. 구술자였던 무용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연이니만큼 직접 뮤지컬에도 출연하길 희망했다.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탁될 줄 알았지만, 원본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탈락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 사례를 통해 구술채록 원본과 예술로 승화된 최종 결과물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 예술 구술사 작업은 굉장히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것 같다. 해당 예술 장르는 물론, 인접 예술 장르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무용 구술사라고 하면, 무용뿐 아니라 무용에 쓰이는 음악까지 관계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언어학까지 걸쳐 있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를 채록 연구자들이 어떻게

잘 통합할 수 있나?

프리드먼 매우 좋은 질문이다. 예술 구술사 작업에는 하나의 정형화된 방법, 기호화된 방식이 없다. 인터뷰하는 상황,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나 원칙이 천차만별이다. 원체 개인의 삶 자체가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 여러 측면을 잘 연계하는 것이 구술사의 핵심이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치료를 구술사로 인정하지 않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 면담이라는 형식으로만 따지면 심리 분석 치료와 구술사가 동일해 보이지만, 심리 분석 치료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외부 사회나 역사적 문맥, 학문적 연구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면에서 구술사와 성격이 다르다.

문화예술 한국에서는 예술 구술사라는 분야가 여전히 생소하다. 정말 많은 시간, 노력이 들어가고, 여러 인접 학문, 방법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만큼 어려운 작업임은 분명한데, 한국의 학계에서는 성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구술사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원인인 것 같다.

프리드먼 구술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되묻곤 한다. 책을 펼쳐놓고 여기에 씌인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문헌기록도 역추적해서 들어가보면 결국 사람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은가. 사실 그리스 역사가들은 문헌기록보다도 오히려 구술 기록을 더 신뢰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세 사람의 구술이 일치한다면, 누군가가 혼자 작성한 문헌기록보다 신빙성 있다고 여긴 것이다.

문화예술 미국에서는 예술 구술사의 위상은 어떠한가? 처음 〈Legacy〉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프리드먼 20년 전에 비해 구술사를 역사의 일부로 승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가관이 기여한 바 있다. 구술사에서는 ‘주관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가관은 주관성을 긍정한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점점 더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대학마다 수용 정도는 각각 다르다. 원래 이론보다 학계의 입장은 느리게 발전하기 마련이지 않은가. 포스트모던한 입장의 교수들보

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교수들이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대학에서는 당연히 구술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학, 노동, 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수적인 학계에서도 점점 구술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까 언급했듯, 여성, 노동자, 호모섹슈얼 집단, 흑인 등이 구술사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Legacy〉 프로젝트의 영향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프리드먼 (웃음) 고맙다. 그랬기를 바란다.

문화예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Legacy〉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것에 계속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나?

프리드먼 〈Legacy〉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1990년부터 〈Legacy〉 프로젝트와 유사한 구술사 작업을 진행하는 집단들을 돕고 있다. 대학교, 환경 단체, 박물관, 무용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구술사 집단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컨설팅 작업들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마지막 질문이다. 한국에 있는 예술 구술사 연구자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프리드먼 한국만의 전통적인 구술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